

# 誠·敬·信 갖추 人間像論

安鍾沅\*

緒論	目次
本論	II. 敬
I. 誠	1. 敬의 道德哲學的 意義
1. 中庸의 敎訓 誠	2. 敬의 現代的 要請
2. 至誠 至天	3. 無敬할 때 誠의 경우
3. 不誠 無物	4. 無敬할 때 信의 경우
4. 誠과 忠	5. 無敬할 때 人間社會의 경우
5. 誠과 恕	6. 小結
6. 誠과 善	III. 信
7. 誠과 仁	1. 道德 倫理的 信
8. 誠과 敬	1) 孔子의 信思想
9. 誠과 信	2) 老子의 信思想
10. 小結	2. 宗教的 信
	3. 小結
	結論

## 緒論

誠·敬·信은 道德가운데 중대한 要目이므로 人間으로서 眞實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이는 꼭 간직하고 항상 實踐하기에 노력해야 할 德目이다.

만일 不誠한 사람이 있다면 不實하여 虛名無實 每事 不成할 것이므로 虛空에 떠가는 구름처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가다 消散하는 人生이 될 것이다.

\*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人間으로 태어나서 特有的 業績을 남기는 사람만이 歷史的 人物이라 할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歷史가 一步 創造되는 것이다.

名士나 政治人들이 歷史創造라는 말을 愛用하나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特有的 業績을 남기는 사람에 한해서 可能하고 業績 없이 왔다 가는 人生들은 浮雲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봄에 피었다 여름에 우거지고 가을에 落葉지는 草木이나 山野 蒼空을 뛰고 날으는 길짐승 날짐승들이 自然의 攝理따라 태어나서 돌아가는 現象은 모두 같고, 人生들이 나뭇잎 같은 生涯를 보낸다면 草木같은 自然人이요 衆生萬物일 뿐이다.

自然現象은 되풀이하는 生成消滅만이 있고 새로운 創造로 無에서 有를 쌓아 올라가지는 못한다.

人生이 偉大할 수 있는 것은 無에서 有를 創造하는데 있고 그것이 歷史인 것이다.

歷史를 創造하는 能力이 무엇인가?

곧 ‘誠’인 것이요, 얼마나 誠을 베푸는가에 따라 人間된 偉大도가 千層 萬層 無限하게 전개된다.

自然의 攝理는 基本生成原理만 책임져서 消滅하지 않도록 原象이 지속되게 하고 있다. 그러나 原象도 지키지 못하고 衰退하여 滅種하는 人·動·植物이 無數하게 많아서 自然界 人生界의 生滅이 多樣하다.

이것은 生命을 가진 者의 基礎本能마저 발휘하지 못하여 宇宙의 理法으로부터 淘汰命令을 받고 滅種되는 것이다.

生命을 가진 者가 억세게 살아간다는 自體가 基礎本能을 지키는 것이요 길이 維持하는 것은 宇宙理法에 順應함이다.

이렇게 大自然에도 ‘基礎誠’에 의하여 生成하고 있다.

人生으로 태어난 者가 生活界에서 現狀維持 하느냐, 下降하느냐, 上昇하느냐, 그것이 生活力이라는 誠의 強·弱度 때문인 것이다.

各論 誠의 研究에서 주로 中庸에 나타난 誠論을 밝혔고, 이어서 諸德 忠·恕·善·仁과의 관계를 살펴 道德的 大人되는 길을 알아 보았다.

忠·恕·善·仁과 같은 큰 德도 誠이 없거나(無誠) 誠이 아니면(非誠) 道

德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宗敎人의 경우 無誠하고서 宗敎目的인 神의 恩寵이나 仙境에 達하려 한다면 幻想일 것이며 絶對적으로 許容될 수 없고 精神的 浪費가 될 것이다.

宗敎人일수록 精誠이 지극해야 無宗敎人보다 次元높은 生活과 凡人이 體驗할 수 없는 靈樂을 알게 된다.

筆者는 各論의 主題를 「眞人되기 위한 基本 德 誠論」이라 定하고 展開하여 갔다.

眞人이라하여 道敎나 莊子에서 말하는 至人 神人 聖人と 같은 幻想的 人間像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秋毫의 거짓도 없고 眞實無垢한 高潔人을 ‘참된 사람’ ‘참 사람’ 그래서 ‘眞人’이라 한 것이다.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짓이 없는 사람’ 즉 ‘僞人’이 되지 말것이 基本이며, 能力이 있어야 하는바, 그 能力이 옳은 것을 實踐하는 ‘誠實力’인 것이다. 참 사람·眞人이라고 하면서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다면 人形같은 사람일 것이다. 옳은 것을 生産해서 萬人앞에 내놓아 無를 有로 證明해야 한다.

誠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참된 것’ ‘옳은 것’ ‘착한 것’ ‘바른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有化作用하는 힘인 것이다.

本論文에서 要點을 정리하여 敬 信과 함께 道德的 眞意를 음미하기로 한다.

‘敬’은 恭遜(공손)함, 謙遜(겸손)함이 主된 뜻으로 이외의 큰 뜻은 없다고 하겠다.

그러면 敬은 道德的 概念인가 倫理的 또는 政治的 法律的 宗敎的 社會的 其他的 구체적 概念인가 할 때 集約的으로는 道德的 概念임에 틀림없으나 倫理 政治 法律 宗敎 社會 즉 人文 社會 科學 全般的으로 관계가 깊은 德目이라는데 敬의 특색이 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不敬하다면 倫理 道德的으로 失格者가 되어 政治的으로도 失格者, 法律的으로도 冷血人, 宗敎的으로 僞善者, 社會的으로 利己主義者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恭敬스런 敬人이라면 어디를 가도 尊敬받고 歡迎받을 것이다. 그

러므로 敬은 全 生活人이 간직해야 할 必須德이라 하겠다.

筆者는 敬 各論에서 ‘人格 無限 內實 擴充化 德 敬의 研究’라는 主題로 論하였다.

敬은 부드럽고 溫厚하며 柔弱한 德인 듯 하지만 內剛外柔라는 말, 敬의 경우가 그렇다고 하겠다.

「君子는 敬으로 內心이 勁直(경직)하고 義로서 외모를 단정히 할 수 있으니 敬과 義가 확립되면 德은 健在하다.」<sup>1)</sup>

이처럼 뼈 없는 昆蟲처럼 敬이 無氣力한 德이 아니라 溫厚하며 和樂을 조성하는 높고 貴한 德이다.

敬을 갖춘 敬人은 本人 自身이 溫和하여 品位높은 貴人이면서 그와 相合할 때 모든 이들에게 和睦하게 하는 平和 增進의 主役이 되므로 尊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많은 德目이 모두 소중하지만 敬이 빠지고서 各 德을 두루 갖췄다면 春이 빠진 冬 夏 秋 三節의 年中이라 비유할 수 있을 것이지만 缺 缺하지 않다.

本論文이 長篇이 되어서 10 20德目과 비교하기로 한다면 敬의 正體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나 中篇이어서 誠·敬·信만 相論하기로 하여 各論에서 言及하기로 한다.

앞서 강조하는 것은 敬이라 하면 古典的 德 특히 儒家의 德으로 생각하는 人士들에게 오히려 未來社會가 더욱 要請하게 될 必須德임을 일러둔다. 前 敬 各論에서 1. 現代的 德目으로서의 敬, 2. 社會人과 敬, 3. 學生과 敬, 4. 教育者와 敬, 5. 宗教人과 敬, 6. 政治人과 敬을 詳論한 까닭도, 敬이 멀어져 가는 現代를 크게 慨嘆(개탄)하면서, 現代人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後世人들에게 明朗한 새 世相을 창조하고 싶다면 人間 相互 尊敬하는 것 이외에 없음을 호소하기 위함이다.

소·말·개 같은 動物을 尊敬하는 사람이 없어 부리고 食用으로까지 취급하는 것, 人間社會에 敬이 사라진다면 사람들 서로가 움직이는 (動)生物 즉 動物 그 이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1) 「君子敬以內直,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周易 : 坤卦文言)

社會에 범람하는 各種 犯罪, 人命을 파리 목숨처럼 가볍게 취급하는 罪人들에게 敬人心이 추호도 없기 때문에 犯行이 自由롭다.

每日 보도되는 新聞 TV 뉴스 政治 社會面의 새 소식이라는 것, 이것이 萬物中 靈長이 아닌 惡漢이 너무나 많다는 소식이다. 教育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最高級 教育을 받은 高位 官職에 있던 사람들, 財閥들의 非行, 金額으로 따지면 數百億원 數千億 數兆원대 不正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動植物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大罪를 犯하는 것이 人生들이다.

千원 公金 한 장도 不當하게 私用하면 敬心이 그만큼 부족해서 이루어진 不正인 것이다.

이것을 보면 ‘敬’에도 1段階 10단계 100 千 萬 億 그 이상 높은 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思想界는 物量으로 測定할 수 없어 精密하게 그 程度를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고 ‘敬’이 또 그러한 實例이므로 다소나마 細分的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한다.

‘微敬’ ‘小敬’ ‘中敬’ ‘大敬’ ‘至敬’ 五段階의 敬을 생각하여 본다. 물론 微敬 小敬이라는 「작다」는 敬도 두가지 等級으로 충분하지 않고 表現 語彙가 없어 있는 말만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韓語로는 ‘微’를 ‘아주 작은’이라 하겠고 ‘微’와 ‘小’의 사이를 ‘자그마한’이라 하여 그것이 ‘敬’과 결합할 때 敬心의 無限한 程度가 있는 것을 부족한 말로 표현하기 애태움을 이해하게 된다.

敬의 初心으로부터 시작하여 차츰 높아가는 中敬 大敬은 끝이 없는가?

끝이 있으니 ‘至敬’ 以上은 없다.

人間이 教育으로 成長하는 것도 初等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校 大學院의 學制 段階를 올라가는 것과 같이, 道德 誠 敬 信도 初德 中德 大德 至德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道德의 世界를 우리가 正確하고 精密하게 알아야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알아서 앞으로 精進해야 할 길이 어디인가? 올바로 내딛게 된다.

‘孝’ 아니면 ‘不孝’라고 하는 黑白論理式 孝論이나 다른 德目の 二者 擇一의 德論은 初德 아니면 至德 즉 學生은 初等學生 아니면 大學院 博士課程生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모든 德은 初等 一年生으로부터 最高學府까지 계층이 있는 것처럼 修德의 基礎로부터 닦아 올라가야 한다. 그것이 道德의 科學的 修練이다.

敬德이 한 層 두 層 세 層 그 이상 끝없이 쌓아갈 때 곧 人格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남을 위해서 恭敬한 것이 아니라 내가 人格者여서 恭敬한 것이요 和樂의 主人公인 것이다.

이제 信의 德을 再吟味하기로 한다.

信은 다른 德과 독특한 바 있음은 信人되기 위해서 努力해야 하는 修練이 있어야 할 必要가 없다는 점이다.

信은 잇는 것 있다 하고, 없는 것 없다 하는 事實을 事實대로 正直하게 밝히는 마음씨가 信心이기 때문이다.

우리 人間社會에 信의 德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있는 것 없다 하고, 없는 것 있다 하며,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믿을 수 없어 不信社會라 공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政治하는 사람은 正義社會를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으나 當然히 그러해야 할 社會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마치 太陽이 中天에 떠있다면 「밝다」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 없을 것이고, 구름이 짙게 靑天을 가리워 어둡게 하면 모두 밝기를 바라고 밝음을 외치는 것과 같다. 물론 다른 德目도 宣揚하는 까닭은 不足하거나 없어져가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다.

「大道가 폐하자 仁 義가 있게 되고, 지혜가 나오자 속임이 크게 날뛰고, 六親(父·母·兄·弟·妻·子)間에 不和하자 孝 慈가 소중하게 여기고, 나라가 혼란하자 忠臣이 나온다.」<sup>2)</sup>

其實 天下 全 子息들이 父母에게 孝道하고 不孝를 할 줄 모른다면 '孝'라는 言語를 發說할 必要가 없어서 孝道教育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다.

「父母에게 孝道, 國家에 忠誠」이라는 公式化된 忠孝教育 口號도 反省할 때 사라져가기 때문에 거듭거듭 喚起시키고 強調하는 것이다.

2) 「大道廢, 有仁義. 慧智出, 有大僞. 六親不和, 有孝慈. 國家昏亂, 有忠臣.」(老子:18章)

그와 같이 ‘信’ ‘信義’도 貴한 德으로 崇尚하게 되는 것은 現代化되면서 信義가 멀어져가고 희박하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 稀貴해서 貴人이 되고 있다.

信義를 지키는 貴人은 어떤 사람인가?

결코 修練하기 노력해서 達성한 修道士가 아니라 「有는 있다」 하고 「無는 없다」고 正直할 뿐, 答을 하기 가장 힘을 들이지 않는 사람, 潔白한 사람이다. 왜 信人되기가 쉬운데 信人이 되기 어렵고 稀貴한가?

理由는 사람들 마음씨가 潔白하지 못해서 正直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有를 無라 하고 白을 黑이라 하는데는 그 마음이 白心이 아니라 黑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中天에 떠있는 太陽은 西쪽으로 넘어가서 來日 東天에 떠오르며 그렇게 또 來日 변치 않는데, 사람들 마음은 無常해서 하겠다면 일을 不行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 까닭은 私心 慾心이 움터서 私益을 채워야 하겠다는 作心이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信人의 마음은 潔白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으며 萬人들이 是認하여 내 마음 당신 마음의 구별이 없어, 내 마음 모든 이의 마음이 統一되므로 一心 共心이 된다. 一心이 共心이 될 때 ‘公心’이 되는 것이다.

信은 한 사람의 마음이 모든 이의 마음과 統一되어 共心되고 公心될 때 疑心의 여지가 없어져 自然히 믿음이 생긴다. 이 믿음은 信義로서 道德的 信이므로 宗教的 ‘믿음’과는 구별되어야 하겠다.

道德的 信은 社會科學的으로 明白하게 知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요, 宗教的 믿음은 所望하는 期待心理인 것이다.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信’과 ‘믿음’을 같게 생각한다면 心理學的 誤謬를 犯하게 된다는 것을 前篇 各論에서 詳說한바 있어 再論을 피하기로 한다.

宗教人들이 宗教的 信을 信仰이라 하지 않고 ‘信’과 ‘믿음’을 混用하면

信 = 믿음

信 = 信義

∴ 믿음 = 信義

이와 같은 基礎論理的 誤謬를 犯한다.

宗教的 信仰으로서의 ‘믿음’과 道德的 信義를 같은 概念으로 생각한다면 文化系列을 分간하지 못하여 文化人도 知性人도 못되는 사람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道德的 人格者가 宗教的 信仰 즉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自由이고 그의 人格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無關하여 宗教와 道德과 無關文化인 것이다.

그와 같은 無關文化가 言語로 ‘信’ ‘믿음’이라는 同語彙로 語幹하기 때문에 道德的 信과 宗教的 믿음이 有關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왔다.

그러므로 誠·敬·信 할때의 ‘信’은 道德的 信義의 信임을 明白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

大巡眞理會라는 宗教의 信條 中 三要諦가 誠·敬·信이라면 三大道德目을 투철히 實踐하는 宗教라는 말이다. 三要諦 가운데 ‘信’은 信仰心이 篤實해야 한다는 ‘信’이 아니다.

여기 大巡眞理會라는 宗教는 다른 宗教와 比較하여 獨特한 것은 道德的 宗教요 倫理的 宗教라는 事實을 알아야 하겠다.

이러한 宗教의 本質을 모르고서 道德的으로 問題가 있는 行爲를 한다거나 倫理에 어긋난 處世하는 道人이라면 教義에 逆行하여 그 宗教人 아님만 못하다.

其他 既成文化宗教로 自他가 共認하는 宗教人들 중에 倫理 道德에 어긋난 行動이 있게 되면 無宗教人 이상 비난이 날카롭고 嘲笑가 倍加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世界 어느 나라에 ‘誠’ ‘敬’ ‘信’이라는 表意文字로 宗教 信條로 實踐에 힘쓰는가 살필 때 韓民族임을 自尊心 갖어야 할 것이다. 前 各論 論文에서 誠敬 信에 대한 字意的 考察을 多角的으로 한바 表音文字 文化圈(主로 西歐)에서는 그 깊은 道德的 眞意를 찾을 수가 없었다.

造物主가 있다면 誠하고 敬하며 信한 眞實 無垢 그대로의 人間에게 소망하는 바 達成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 宗教的 所望과 倫理 道德的 實踐이 合一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



다.

## 本 論

### I. 誠

#### 1. 中庸의 敎訓 誠

誠이 儒敎哲學에서 正統的인 主要德目으로 인정된 것은 中庸에서부터이다.

中國 戰國時代 이전에는 '誠'에 관해서 論한바 거의 없고 다만 尙書 太甲下에 「鬼神無常享 享于克誠」이라는 句節에서 처음 「誠」을 말한 것이다.

儒學의 元祖 孔子까지도 講學에 있어서 仁·義·禮·智·忠·恕·信·中庸·恭·寬·敏·惠등 여러 德目を 說하였지만 「誠」에 관해서 留意한 기록은 없다.

따라서 中庸이 子思作이라면 孔子의 孫子에 이르러 重視된 것이다. 그러나 中庸이 과연 子思作인지 여부는 學界의 論難對象이 되고 있으나 그 事實을 考證할 의도는 없다.<sup>3)</sup> 다만 이렇게 元始儒敎에서 볼수 없든 「誠」이라는 德目이 어떻게 正統的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인가 思想的 體系를 究明하여 보는 것은 뜻이 있을 것이다.

中庸에서 '中'의 德 즉 中和 中庸 時中을 說하면서 어찌해서 '誠'을 이어 다루게 되었는가부터 연구하기로 한다.

「在下位，不獲於上，民不可得而治矣。獲於上有道，不信乎朋友，不獲於上矣。信乎朋友有道，不順乎親，不信乎朋友。順乎親有道，反諸身不誠，不順乎親矣。誠身有道，不明乎善，不誠乎其身矣。誠者，天之道。誠之者，人之道也。誠者，不勉而中，不思而得，從容中道，聖人也。誠之者，擇善而固執之者也。」(中庸 20章)

3) 中庸의 中段만이 子思의 原作이요, 首段은 易의 繫辭文言과 함께 秦漢間 子思 孟子 系統의 儒學者들이 編成한 것으로 본다. 馮友蘭著 中國哲學史 第一篇 第十四章 八節. 武內義雄著 支那思想史 32面 參照

(意譯)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윗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섬길 수 없다면 百姓을 다스릴 수 없다. 윗사람을 잘 섬기는 방법이 있으니 벗들에게 信義를 얻는 것이다. 벗들로부터 信義를 얻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자기 父母에게 順從하는데 있다. 父母에게 순종하는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誠實하여야 한다.

誠者는 天의 道요, 誠하려는 것은 사람의 나아갈 길이니, 誠者는 힘을 안들이고도 的中하고 思慮함이 없이 얻어지고 行爲 그대로가 道에 들어 맞는다.

誠하려는 者는 善을 擇하여 잃지 않도록 執着하기 힘쓴다.」

여기에 ‘誠’과 ‘中’이 나온다.

그러나 주의를 쏘아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中’이 과연 中庸의 主旨로서의 ‘中’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中庸의 主旨로서의 ‘中’은 首章에 「喜怒哀樂 未發謂之中」이라 하고 「中也者 天下之大本」이라 하였으며 朱子는 註에 「喜怒哀樂은 情이요 其未發은 性也라 無所偏倚 故로 中이라.」하였으니 的中한 註解다. 首章의 ‘中’은 天下之大本이 되는 ‘性’이라는 名詞로서의 ‘中’이요, 20章의 「不勉而中」이나 「從容中道」의 ‘中’은 「드러맞는다」 「的中한다」라는 一個 動詞에 불과한 ‘中’이다. 따라서 兩者는 같은 ‘中’이면서 乖離的인 意味內容이다.

그러나 이 乖離內容속에서 相通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는바 孔子의 自述 懷古談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論語:述而)의 境地를 想起할 때 「不踰矩」가 바로 ‘中道’를 이룸이요 「從心所欲」이 곧 「從容」이라 본다면 모든 의심의 실마리가 풀린다.<sup>4)</sup>

「不踰矩」라는 말은 孔子가 自身の 경우를 說하는 말이기 때문에 매우 평이한 표현으로 ‘矩’字(規範 즉 人間의 當爲法則)를 썼지만 人間이 絶對 自

4) 「從容中道」의 解釋에 대하여 雙峯饒氏는 「不勉而中」은 「安行之仁」이요 「不思而得」은 「生而知之」요 「從容中道」는 「自然之勇」이라 하여 知·仁·勇 三達德의 眼目으로 보았다. 그러나 前二者의 해석은 首肯할 수 있어도 「從容中道」‘勇’이라 할 수는 없다.

이 보다는 「從은 從心所欲의 從字의 뜻과 같으니 ‘그대로’의 뜻이요, 容은 容儀의 容字의 뜻으로 ‘態度’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從容은 ‘態度그대로’라고 譯할 것이다.」 그래서 中道를 「不踰矩」라 본다.

金敬琢 論文 ‘易과 中庸의 研究’ 高大 文理集 一輯 33~34面 參照

律者가 되기 以前에는 萬人의 當爲規範을 추호도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노릇이다. 하물며 「從心所欲」 즉 自己 마음대로 행동해도 中道(的인 中한 道理)를 어기지 않는다면 이는 곧 絶對 自律者 즉 聖人이 아니 고서는 못할 境地라 하겠다.

우리가 孔子를 聖人이라 칭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孔子를 聖人이라 부를 수 있는 限界 또한 嚴格히 말해서 餘生 三年에 不過하다면 冷評이라 할는지 모르겠다.(孔子 73歲 下世함)

그러면 「誠者不勉而中」의 ‘中’은 어디에 的인 中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바로 「從容中道」라 하였으니 ‘道’에 的인 中한다는 것이다.

‘道’란 무엇일까?

首章 첫 句節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라 하였으니 天賦的 性을 따르는 것이 ‘道’요, 그 道를 離脫치 않으려고 修鍊하는 것이 ‘教’라 하였다.

人間의 天賦的 性은 ‘人性’일 것이며 人性을 따른다는 것이 ‘道’라면 그 道는 ‘人道’일 것이니 中道함은 天賦的 人道에 的인 中하여 어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天이 命한 性을 다하는 길이요, 孟子가 말한 「盡心 知性하면 知天」이라는 歸納推理와 合一되는 점이다.

首章의 ‘中’은 性의 中, 天命의 中 이라한바 여기 中道의 他動詞로서의 ‘中’의 對象은 곧 天이 命한 人性 人道이고 보면 目的이 歸一된다.

그러므로 首章의 性의 中은 名詞였지만 20章의 中은 그 名詞의 動詞 즉 自動詞이다.

여기서 우리는 中庸의 德 즉 日常生活에서 不偏不倚하고 無過不及하는 德目속에서 誠이 結付되어야 할 原因을 찾아냈다.

다시말하면 中庸篇과 誠篇이 別個的 二篇이던 것이 合篇된 것이 아니라 思想的으로 또 體系上으로 不可分의 關係를 맺고 있음을 밝혔다.

여기서 우리는

天 = 性 = 中 = 誠 이라는 略式으로 表明할 수 있다.

다음에 「誠者는 天道요, 天道를 따르는 者는 人道」라 하였으니 人道는 天에 通하는 길이다.

그러면 天에 이르는 修行의 길은 무엇일까?

「誠身有道，不明乎善，不誠乎其身矣」라 하였으니，天 天意 性 즉 誠에 이르는 길은 다름 아닌 善行의 길이라 한다. 그 方法으로 人爲的 修行이란 善을 擇하여 놓치지 않도록 꼭 간직하고 그 路線을 따라가면 天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天의 正體는 善의 全部 즉 至善임을 알았다.

그러면 天 = 性 = 中庸 = 誠 = 善 이라는 略式에 달할 수 있다.<sup>5)</sup>

## 2. 至誠 至天

「唯天下至誠，爲能盡其性。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化育。可以贊天地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中庸：22章)

(意譯)

오직 至誠이라야만 天이 命하여 받은 나의 本性을 다 할 수 있고, 나의 本性을 다 할 수 있다면 他人의 心性 또한 天賦이기에 感化할 수 있고, 他人까지 感服시킬 수 있다면 人間 이외의 物性を 通할 수 있으며, 人間界와 自然物界까지 通性할 수 있다면 人生 萬物을 化育하는 天의 威力과 對等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天과 合一될 수 있는 原理라는 것이다.

이것은 簡明하게 이렇게 要略될 性質의 것이다. 즉 「唯天下至誠 可以與天地參矣」라고. 內容을 설명하고자 條件付說의 感을 주지만 「天 = 誠」이기 때문에 至誠이면 至天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孟子의 「盡其心者 知其性。知其性 則知天矣。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孟子：盡心 上)

이 盡心思想과 一致된 所論이다.

---

5) 中庸의 首章을 朱子는 中庸 全體의 總論이라 보았고 馮友蘭은 子思의 原來 本書가 아니고 中庸說로 보았고, 武內義雄은 이것을 中庸의 三達德 五達道와 相應하는 것이니 中庸의 本文이 아니요 中庸說의 錯簡일 것이라고 하였다.(前 易과 中庸의 研究：36面) 그러나 筆者는 馮友蘭 武內 兩氏의 見解는 上述 理由로 해서 不當하다고 보는 것이며 朱子의 總論說에 贊同한다.

### 3. 不誠 無物

「誠自成也，而道自道也。誠者物之始終，不誠無物。是故君子誠之爲貴。誠者非自成己而已也，所以成物也。成己仁也，成物知也，性之德也，合內外之道也，故時措之宜也。」(中庸：25章)

(意譯)

誠은 宇宙萬物을 生成하는 至上의 原動力일뿐 아니라 存在原理라 보는 까닭에 自成이라 한 것이며 이러한 誠의 原理를 率性한 때문에 自行(自道)한다는 것이다.

物의 存在原理이기에 物之終始라 한 것이며, 不誠이면 無物이라 함은 宇宙萬物의 存在法則까지 誠이라 보기 때문에 誠이 없는 곳에는 宇宙存在 圈을 벗어났으므로 無物이라 하는 것이다.

德人이 誠을 貴히 여기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한다.

不誠이면 無物인 까닭에 誠이면 有物이 原則일 것이요, 그래서 「誠者非 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誠은 自己 스스로 이를 뿐만 아니라 事物을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我의 面에 誠을 다할 때 그것은 仁이라 하고 物의 面에 誠을 다할 때 知라 이르는 것이니 모두가 타고난 天性의 德인 것이며 我와 物이 合致 되는 理致이다.

그러므로 時宜適中하게 仁과 知의 性德을 兼全할 것이다.

不誠 無物의 原理는 우리 人間社會에서 더욱 切實하게 體驗되는 바 많다.

어떤 目的事實을 達成하자면 不斷한 誠實力을 集中하지 않으면 안된다.

中庸에서는 이 점을 道德面과 物理面으로 나누어 自身에게 誠을 다하는 것을 仁이라는 最高德目으로 보고 物界에 誠을 傾注하는 것을 知라 하였다.

이 때 仁은 비록 自身에게 誠을 다하여 얻은 個我的 德이라 할 지 모르나 至誠으로 仁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이 仁은 個我에 極限된 部分德이 아니라 모든 從的 德이 包括되는 大德으로서의 仁이기 때문에 人間社會 全般에 包 攝되는 大人格性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 成物하는 知의 誠은 바로 現代物質文明이 좋은 例일 것이다.

우리 知能을 最大限으로 발휘하여 즉 誠을 다하여 物의 理를 推究하므로 써 知覺의 世界를 擴大하고 自然을 利用하여 生活의 利器를 풍부히 하는 것 도 成物 誠의 知의 좋은 實例가 될 것이다.

이것이 人間이 타고난 性命을 다하는 大德이며 物·我를 通達하는 人間이 걸어갈 길이라 보는 것이다.

仁이라고 하는 德과 知能은 性의 一體 兩面의 것이기 때문에 德의 陶冶와 知能의 啓發은 편벽되지 말고 適中한 發揚을 하여야 할 것이다.<sup>6)</sup>

#### 4. 誠과 忠

筆者는 忠을 民主德目이라 규정하고 있다.<sup>7)</sup>

그 이유는 文字 構造로 보아도 ‘中’과 ‘心’으로 되어 있어 他意가 개입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忠은 國民이 國家를 위해서 또는 王을 위해서 最善을 다하는 不動의 律法으로 알고 지켜오고 있는 것은 孔子의 다음 言明이 있기 때문이다.

「定公이 問기를 君王이 臣下를 부리고 臣下가 君王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孔子 大답하기를 君王은 臣下를 禮로써 다스리고 臣下는 君王을 忠으로 섬겨야 합니다.」<sup>8)</sup>

6) 本文 「...不誠無物...故時措之宜也」 부분은 在來 해석이 애매하여 筆者의 見解를 밝힌다.

○ 朱子 註 「...仁者體之存, 知者用之發, 是皆 吾性之固有而無內外之殊. 既得於己則 見於事者, 以時措之而皆得共宜也.」

○ 新安陳氏 註 「...由成己之仁 發爲成物之知, 則知固自仁中出, 又能合乎. 時措之宜, 則義又從是而義亦自仁中出矣. 仁也知也義, 一以貫之, 皆實理之條目也.」

○ 雲峯胡氏 註 「...時措之時字, 既時中之時, 性之德. 是未發之中, 是措之宜 是發而合乎時中之中.」

○ 金敬琢(易과 中庸의 研究-高大文理論集 一輯)

「故時措之宜」를 「그러므로 때로 이것을 베풀어도 마땅하다」고 해석하고 이어서 「이 德은 我와 非我 즉 物 또는 內界와 外界를 和合하는 天道이다. 이 法則을 時中性에 의하여 事物을 措處하면 透徹通達하여 一以貫之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 筆者 : 「成己仁也」를 「德의 陶冶」라 하였고 「成物知也」를 「知能의 啓發」이라 하였으며 이 知와 德은 天賦的인 人性이라 보았다. 그래야만 「性之德也」의 原解가 되기 때문이다. 「合內外之道」도 人間의 精神的 修德의 世界를 內요, 自然의 物質發掘같은 進歩는 外가 되어 「合內外之道」는 「안으로 德을 陶冶하고 밖으로 物界開發을 合하는 길」이라 하였다. 「時措之宜」의 ‘之’字는 곧 「性之德」의 代名詞라 보기 때문에 「時宜適中하게 仁과 知의 性德을 兼全할 것」이라 해석하였다.

7) 安鍾沄 著 民主倫理學要論 (螢雪出版社 刊) 211~221面 參照

8)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論語 : 八佾)

이 때의 「臣事君以忠」이라는 孔子의 答辯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忠’은 多樣하게 달라진다.

筆者는 字 構成을 중시하여

「忠은 마음 中心이 지극히 公正하고 私心이 없는 것이다.」<sup>9)</sup>

「忠은 그 마음을 하나로 集中함을 말한다.」<sup>10)</sup>

「忠은 안으로 盡心을 다하는 것이다.」<sup>11)</sup>

「盡心을 忠이라 한다.」<sup>12)</sup>

「自身の 최선을 다하는 것을 忠이라 한다.」<sup>13)</sup>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各者 人間이 마음 속 깊이 最善을 다 하는 德目이요, 더욱 民主主義時代에 君王에게 生命을 바칠만큼 服從하는 德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民主時代에 我와 國家가 興하느냐 亡하느냐 하는 것은 主體者 國民이 任務에 얼마나 最善을 하는가 不實한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忠이야 말로 民主時代에 절실히 필요한 道德이기에 民主德目이라 강조하였다.

筆者는 獨特하게 忠의 哲學을 發表한 바, ‘나’는 社會 國家 世界內 存在로서 내가 자리할 位置는 忠의 敎訓 그대로 어디를 가나 中心點을 차지한다는 自覺을 해야 民主國家 社會의 主人 主役 資格을 取得한다고 하였다.

君主時代는 國家 社會의 中心點은 王이 자리하였지만 民主時代는 모두가 國家의 王 主人이므로 中心點的 存在로서 責任을 투철히 自覺하여 每事에 最善을 다해야 하는바, 나와 國家 社會 世界의 關係는 幾何學과 物理學 力學이 作用한다. 幾何學 관계로는 나는 圓의 中心點이고 國家 社會는 圓의 面積이어서 나와 國家는 二者가 아니라 中心點은 面積의 縮小體요, 面積은 中心點의 擴大라는 一者 一體의 縮小 擴大體다.

9) 「忠者 中心至公無私也.」(忠經)

10) 「忠也者 一其心之謂也.」(忠經)

11) 「忠者 內盡於心也.」(小戴禮記:祭器篇)

12) 「盡心曰忠」(說文:十篇下二五)

13) 「盡己之謂忠」(中庸:十三章 朱子註)

나와 國家가 興하기 위해서는 物理力學의 原理에 따라 中心人物인 我가 遠心作用의 忠과 求心作用의 忠을 해야한다. 이 忠의 哲學을 筆者의 博士學位論文에 發表하였고 몇 論文에도 소개하였으므로 本篇에서는 생략한다.<sup>14)</sup>

國家 社會 世界內存在로서 最善을 꾸준하게 다 하는 것이 誠이요 誠이 없다면 忠이 作用하지 못한다.

## 5. 誠과 恕

‘恕’가 孔子의 道德思想 가운데 중요한 德目으로 꼽히게 된 것은 孔子 自身이 「吾道一以貫之」라 하였을 때 曾子가 孔子의 一貫된 道를 「忠恕」로 파악한데서 연유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子貢과의 問答에서 다음과 같이 答하였다.

「子貢이 問기를 「一平生 지켜갈 行爲의 指針을 한 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까?」 孔子 말씀하기를 그것은 恕라 할 수 있다 하였다.」<sup>15)</sup>

「恕」에 관한 설명으로

「내가 願치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sup>16)</sup>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孔子의 道를 後世에 전승한 曾子의 견해와 顏淵 다음으로 信賴를 받던 高弟子 子貢에게 가르친 終身 實踐德目이 「恕」라면 儒學을 익히려는 모든 사람이 새겨두어야 할 道德에 틀림없다.

筆者는 恕를 現代的으로 定義내리기를 「民主平等 德目」이라 하는 바, 民主主義 社會에서는 人間을 모두 尊嚴하다고 優待해야 한다고 하나 형식적으로 人尊時代가 왔으므로 尊敬해야 한다는 口呼를 實踐하자면 誠意가 뚜렷해야 한다.

「己所不欲 勿施於人」 할 뿐 아니라

14) 大巡思想論叢 第9輯 133-171面, 拙稿: ‘眞人되기 위한 基本 德 誠論’ 參照

15) 「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其恕乎.」(論語: 衛靈公)

16) 「--己所不欲 勿施於人.」(衛靈公)



「내가 立身하고 싶으면 남도 立身케 하고 내가 達成하고 싶으면 남도 達成케 하는 것이 仁의 律이요, 내가 願치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은 恕律이다.」<sup>17)</sup>

仁律 恕律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己欲立而立人 하고 己欲達而達人」 하는 積極的 水準에 오르는 것이 恕의 目的境 仁인 것이다.

바로 誠이 아니면 높은 恕 仁에 가까이 할 수가 없다.

## 6. 誠과 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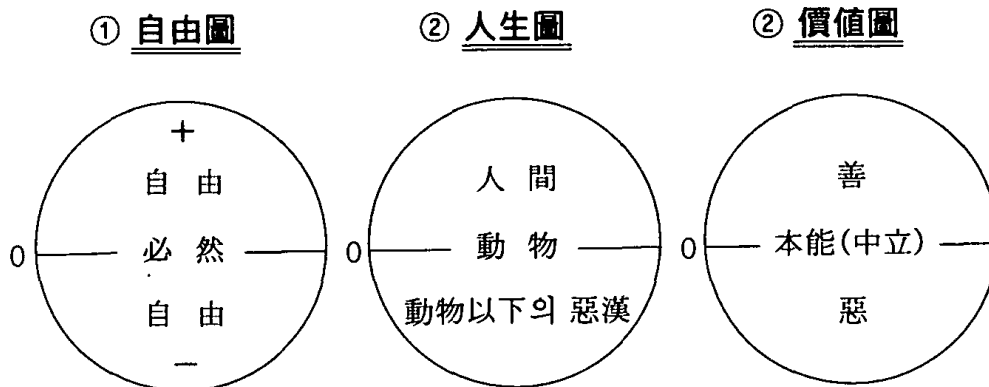
人間存在는 本來 善하게 태어났는가. 惡하게 태어났는가 하는 問題는 東西古今 哲學者들이 깊은 關心을 아니 갖을 수 없어 各說이 있다.

筆者 本論文에서 구체적으로 論할 수 없어 筆者 ‘民主倫理學 要論’ 第2章 人間論 3節 人間存在의 人性論的 考察에 詳說하였음을 밝힌다.<sup>18)</sup>

많은 學者들의 人性에 관한 研究를 살피고 本人自身 所信으로 내세우는 것은 ‘性自由論’이다.

人生은 태어났다는 事實로는 動物科 生物이므로 他動物과 다를바 없는 것을 是認해야 한다. 生理的으로 善하다든가 惡하다든가 前提한다면 固定觀念부터 解明해야 할 宿題를 남겨놓아, 新題는 끝내 未題로 쌓인다.

筆者가 보는 人生圖, 能力으로서의 自由圖, 善惡價值圖는 다음과 같다.



17)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仁之律也. 己所不欲, 勿施於人, 恕之律.」 黃建中 著 比較倫理學 102面 參照

18) 安鍾沄 著 : 民主倫理學要論 62-113面 參照

人生이 動物로 태어나서 他動物보다 다른 점이 있다면 腦細胞가 精密하게 조직되어 腦機能이 優秀하다는 것 뿐이다. 그래서 思惟能力이 뛰어나 그것이 動物 本能 以上 生의 欲求로 強하게 作用하여 그것을 自由라 하였다. 그 自由는 有益한 欲求로 作用하면 좋은 文化를 創造하지만 有害한 欲求로 作用하면 反益文化를 만든다. 그 腦機能을 +自由 -自由라 命名하여, +自由를 行하는 人生을 人間이라 하고 -自由를 부리는 者를 動物 以下の 惡漢이라 하였다. 人間界에 善·惡의 價値觀이 있게 된 것은 +自由를 行할 때 善이 되고 -自由를 恣行할 때 惡이 된다.

腦機能이 發達되어서 +로 作用할 것인가 -로 作用할 것인가 까지 自由인 것이 人生의 自由이다.

誠이 없는 者는 곧 -自由로 直行하므로 오직 誠으로 +自由에 上行해야 한다.

## 7. 誠과 仁

「仁」은 孔子가 崇尚한 最高의 德이므로 儒學 頂上 德目임에 틀림없다. 이 研究는 책 一卷으로 足하다 하기는커녕 몇 十卷 책으로 다 했다고 할 수 없어 本論文에서는 仁의 研究方法만 一言하기로 한다.

「孔子 말씀하기를 「由야 너 六言 六蔽라는 말을 들어 보았느냐?」 대답하기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았거라 나 너에게 일러 주겠다.」 「仁을 좋아하며 學問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어리석고, 알기를 좋아하며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황당하고, 믿기를 좋아하며 배움이 없으면 그 폐단은 義를 해치고, 끈기를 좋아하며 배움이 없으면 그 폐단은 조급하고, 용기를 좋아하고 배움이 없으면 그 폐단은 亂暴해 질 수 있고, 剛하기를 좋아하고 배움이 없으면 그 폐단은 狂기를 부릴 수 있다.」<sup>19)</sup>

여기서 말하는 「學」은 옳고 바른 人間되기 위한 教育을 말한다.

教育은 自然人 즉 動物에 불과한 '사람'을 萬物의 靈長으로 만들기 위한

19) 「子曰由也，女聞六言六蔽矣乎。對曰未也。居，言語女。好仁不好學，其蔽也愚。好知不好學，其蔽也蕩。好信而不好學，其蔽也賊。好直而不好學，其蔽也絞。好勇而不好學，其蔽也亂。好剛而不好學，其蔽也狂。」(陽貨)

後天的 作業인 것이요, 그 작업을 얹거나 不誠實하면 下等動物로 轉落한다.

孔子의 六言 六蔽論은 무궁한 뜻이 있어 그 解說을 아무리 해보아도 넉넉치 못함이 아쉽다.

‘仁’이라고 하는 最高德도 眞人 되겠다는 教育을 誠心 誠意껏 精進해야 仁에 接近할 것이요 無誠意하면 愚昧한 人生이 되고 만다.

自然상태의 人生은 저절로 善良해져서 欲心만 버리면 仁人까지 自成하는 것이 아니라 人間教育을 잠시도 멈춤없이 즉 「誠之」의 努力에 따라 結果는 따라온다.

## 8. 誠과 敬

孝經에 다음과 같은 敎訓이 있다.

「孝道를 教育하는 것은 자기 父母만을 恭敬하게 함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父母를 恭敬하게 함이요, 悌(兄弟間의 우애)를 教育하는 것은 자기 兄을 비롯하여 세상의 兄된 사람들을 모두 公경하게 함이요, 臣 下된 道理를 教育하는 것은 世人의 임금된 사람을 公경하게 함이다.」<sup>20)</sup>

東洋 傳統社會에서 孝·悌·忠의 道德教育을 崇尚하여 왔던 것은 自己家庭의 父母兄弟만을 公경하거나 자기나라 임금에게만 忠誠하자는 것이 아니라 天下 모든 父母 兄弟 王을 一家族처럼 恭敬하자는 汎人類愛를 目的한 人間愛 教育이었다.

여기 東洋의 넓고 높은 人間教育을 21世紀 世界化時代가 배우고 實踐해야 할 일이다.

敬人思想을 새롭게 깨달아야 人尊時代인 民主時代가 열려 새 歷史가 創造될 것이다. 物質文明만 所重한 줄 알고 人間은 그것에 매달린 附屬品으로 생각하는 主客이 顛倒된 文化觀을 바로 세워야 하겠다.

敬人思想은 人類歷史를 올바르게 方向을 잡아주는 羅針盤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社會 구석구석에도 敬人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고 不敬 無敬의 風潮가 범람하는 것, 新世紀 바로 잡을 人類教育의 大課題로 내 세워야 하겠

20) 「教以孝, 所以敬天下之爲人父者也. 教以悌, 所以敬天下之爲人兄者也. 教以臣, 所以敬天下之爲人君者也.」(廣至德)

다.

人類 모두가 敬人思想으로 精神革命하자면 우선 ‘人間’으로 復歸해야 하고, ‘너’와 ‘나’가 相生하겠다는 人間倫理를 生活化하기에 誠을 쏟아야 한다.

敬人됨은 바로 修道的 努力으로 可能的 것이요, 힘쓰지 않고서는 尊敬받는 人格者가 절대로 不可함을 銘心해야 하겠다. 尊敬받는 人格者 바로 誠心の 結果임을 알아야 하겠다.

## 9. 誠과 信

‘敬’의 德目까지만 하여도 修道的 努力에 比例해서 人格이 成長한다 하였으나, ‘信’에 限해서 人爲的 造作을 얼마나 排除하기 힘쓰는가에 따라 眞信人이 될 수 있는 것이 道德的 特色이라 하겠다. 왜 人生은 人作으로서의 造作이 道德과 멀어 가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筆者의 人生圖에서 明示하였듯, 動物科에 屬해 있는 人生이 自然界의 生物들 중에서 精密한 腦機能을 갖추어 思惟作用이 뛰어나기 때문에, 自然을 멀리 하고 人生만의 自作으로 그 智力을 競爭하여 앞서야 生存競爭의 勝者가 된다는 鬪爭意識이 強力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物質 所得 따위 양보하고 옳은 것 참된 것 自然에서 배우는 것이 造作 僞의 人生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信人은 人生의 智力이 優秀하다 하여도 宇宙에 比할 때 小人들의 小智 즉 잔재주 따위를 버리고, 오늘도 東天에서 登天하여 西山에 지는 太陽을 따르는 부담 없는 ‘自然人됨’ 이다.

人生의 腦細胞가 아무리 精密하게 構成되었다 하여도 宇宙의 造化 設計圖에 比할 성질은 절대로 아님을 알았다. 그러므로 人事 物事の 界는 있는 것 있다 하고 없는 것 없다 하는 事實 그대로의 報告가 信인 것이다.

信의 道德을 修道한다면 무엇을 힘쓸 것인가?

힘 쓸 곳이 없는 無爲 修道인가?

있다. 그것은 人生의 小智謀가 造作한 僞의 混亂에 빠지지 않도록 正智를 發揮하기 힘써야 하고, 各種 小智人들의 誘惑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그 小智의 奸計를 壓勝하기까지 正心을 기르기에 誠心を 다 해야 한다.

大學의 核心 敎理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의 八條 目を 보더라도 誠意없이 正心되기를 바랄 수 없는 것, 宇宙 大自然의 原理를 따르겠다는 ‘信’은 誠心 正意에서 만이 期待할 수 있다.

## 10. 小結

‘誠’에 관하는 限 中庸만큼 깊고 넓게 研究된 學問도 없어 要旨을 말하면 誠은 人間事에 국한한 德目이 아니라 天에까지 通하는 原理임을 알았다. 그래서 盡人事하면 至天하므로 人生이 天人될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無誠하면 每事가 不成하여 되는 일이 없다 하였으니, 이 事實은 우리 日常生活 속에서 體驗하는 바가 많다.

최근 政府에서 對民 勸善事로 家訓갖기가 활발한 바, 家訓가운데 가장 많은 例訓은 「至誠」 또는 「至誠이면 萬事成」 「家和 萬事成」임을 볼 때 共認된 不文律化 되었고 生活上 實証哲學으로 굳어졌다.

이제 傳統 道德과 誠과의 관계를 살피기로 한다.

國家社會와 我가 一體되어 發展할 수 있는 德이 忠임을 알았고 忠의 機能을 다할 수 있는 것도 誠을 다 해야 함을 알았다.

참된 民主平等社會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恕의 德이 民主市民에게 一般化되므로서 可能하고 各者 恕를 實踐하자면 誠을 베풀어야 하였다.

善은 東西古今 人類가 소망하는 德인데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誠心이 아니고서는 못 함을 알았다.

仁의 경우 儒學 頂上 德임을 是認하나 私的 仁이 아닌 普遍的 仁이 되기 위해서는 學問的 修鍊의 誠이 있어야 함을 알았다.

敬과 信은 Ⅱ章 Ⅲ章에서 詳說할 것이므로 이만 줄인다.

## Ⅱ. 敬

### 1. 敬의 道德哲學的 意義

「子路가 「君子는 어떤 사람(人間像)입니까?」 하고 물었다.

孔子 대답하기를 敬으로 몸을 陶冶하는 사람이다.<sup>21)</sup>

儒學에서 高位人格者로 尊敬하는 君子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해야 君子 되겠는가 孔子께 문의하자, ‘敬’한 字로 修德하면 可能하다고 答하였다.

이 말씀 속에 無窮한 뜻이 들어 있다. 前 各論에서 敬의 字義를 多角的으로 고찰하여 再論할 수는 없으나 人間社會에서 尊敬받을 수 있는 人格者가 되자면 언제 어디를 가나 對人關係에서 溫和하고 謙遜하면 환영받는 人間像이라 하였다.

「禮는 敬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恭敬하면 그 아들이 기뻐하고, 그兄을 恭敬하면 그 아우들이 기뻐하고, 그 임금을 恭敬하면 신하들이 기뻐하니, 한 사람을 恭敬하고 千萬의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 敬은 적으면서 많은 이를 기쁘게 하니 道德의 基本이라 이를 수 있다.」<sup>22)</sup>

筆者는 ‘禮’를 「人間 文化的 行爲規範」이라 한 바 있다.<sup>23)</sup> 옛 聖賢들이 지키던 因習으로서의 禮가 아니라, 人間歷史가 발전하면서 生活樣式이 바뀌고 便利하게 살려 하는 것이 趨勢인 바, 그것이 品位를 떨어트리며 便利第一主義로 나가다가 야만스럽게 行態가 변모하는 것은 卽 떨어진 文化人이요, 新文化人像은 敬心으로 品位를 지켜야 한다. 人生을 便하게 살아가면서 敬心을 잃지 않고 品位를 높인다면 거기 現代의 禮가 있다.

人類文化가 앞으로 千年 萬年 발전하더라도 禮의 核心이라 할 敬이 빠진 未來史는 無禮한 人類史가 될 것이고 尊嚴한 人間은 없어지면 高級 利器의 奴隸社會가 될 것이다.

사람이 서로 尊敬해야 人間社會는 宗教人이 소망하는 天國이나 仙境을 自作하게 될 것이요, 사람 自身이 貴한 줄 모르면 相互 賤待하여 動物園을 自作함은 당연한 결과이다.

朱子の ‘敬’敎訓을 들어본다.

21) 「子路問君子. 子曰修己以敬.」(論語:憲問)

22) 「禮者敬而已矣. 故敬其父則子悅, 敬其兄則弟悅, 敬其君則臣悅, 敬一人而千萬人悅. 敬者寡而悅者衆, 此之謂要道也.」(孝經:廣要道)

23) 安鍾沄 著: 民主倫理學要論(螢雪出版社) 235面 參照

「敬은 마음의 主宰요 萬物의 根本이다.……대체로 이 마음(敬)이 확립되어 格物하고 致知하여 만물의 理致를 다하면 그것이 이른바 德性を 높이고 學問하는 길이며, 이로 말미암아 뜻이 성실하고 마음이 바르게 되어 修身하게 되면, 이른바 먼저 큰 것을 세움으로써 작은 것은 빼앗지 못 하게 되어 내 몸을 닦아 萬百姓을 편안하게 함이 된다. 독실하고 공경하여 天下를 태평하게 하는 것, 이것은 모두 하루라도 敬을 떠나서 되어본 적이 없다. 그러한 까닭에 敬 한 字야말로 聖學의 始終一貫된 核心的 德이 아니겠는가?」 24)

退溪先生의 居敬 窮理思想을 들어본다.

「靜할 때 엄숙한 것은 敬의 體요, 動할 때 齊整한 것은 敬의 用이다」 25)

人生이 움직일 때는 敬의 作用, 고요할 때는 敬의 本體라 하니 24時間 지나거나 敬의 一生이 退溪先生의 生涯라 하겠다. 그러므로 一平生 嚴肅하고 조심스럽게 살아 高潔할 따름이요 모든 일에 事理가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先賢이나 모든 사람이 每事에 敬으로 살았고, 살아간다면 理氣의 哲學的 解明이 달리 필요가 없고 哲人의 길을 걸었고 걸어 갈 것이다.

## 2. 敬의 現代的 要請

現代를 情報化時代라 하는바 情報는 쉬운 말로 ‘消息(소식)’이요 情報化時代라면 「소식이 빨리 전달되는 時代」라는 말 일 것이다. 그러면 무슨 소식이 그토록 빨리 전달된다는 말인가?

世界 各國이 戰爭준비에 분주한 때라면 軍事情報에 민감하겠지만 아직 三次世界大戰 대비에 긴장인 時代라고는 할 수 없고 나라마다 잘 살아 보겠다는 經濟戰爭期에 들어서서 利器 開發에 科學的 情報가 急速度로 전달되는 時代라 하겠다.

가난한 나라는 自力으로 먹고 살자는데 注力하고,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24) 「敬者一心主宰, 而萬事之本根也.----- 蓋此心既立, 由是格物致知, 以盡事理之理, 則所謂尊德性, 而道問學. 由是誠意正心以修其身, 則所謂先立其大者, 而小者不能奪. 由是齊家治國以及乎天下, 則所謂修己以安百姓. 恭篤而天下平, 是皆未始一日而離乎敬也. 然則敬之一字, 豈非聖學始終之要也哉.(大學或問)

25) 「靜而嚴肅, 敬之體也. 動而齊靜, 敬之用也.」(退溪集: 答李宏仲)

살려하고 따라 오는 나라에 뒤질세라 加熱내고 있다.

여기 國際倫理나 國際道德이라는 말은 生疎하려니와 이 방면에 關心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형편이므로 地球村 人間界에는 倫理와 道德이 크게 멀어갈 것이다.

특히 ‘敬’이라고 하는 人間尊重思想은 地球의 半分 東洋에서 20世紀 以前까지 尙상되어 오다가, 21世紀부터는 科學情報 經濟實利主義가 高度 발전하면서 옛 道德으로 들리게 되었다.

靑少年들에게서 ‘敬’은 찾을 수 없고 入學試驗을 위해서 암기한 의미풀이 설명은 할 수 있을 정도이다.

既成世代로부터 新世代까지 人間愛의 敬人思想은 느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한 오늘날, 回復하기 위해서는 學校에서 倫理 道德教育이 철저히 해야 하나 앞서 말 한대로 入試 점수 따기 위한 공부요, 人間되기 위한 教育은 아니라는 사실,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多幸히 韓民族에 의해서 創導된 宗教 大巡眞理會의 信條 가운데 實踐 三要諦 誠·敬·信을 提示한 것은 人間이 動物化되어 가는 現實에서 人間回復運動이 아닐 수 없다.

三要諦는 前述한 바와 같이 높은 道德律이요 宗教的 所望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誠·敬·信을 철저히 지키는 道德人 倫理人이 되어만 宗教目的을 期待할 수 있는 것이요, 三要諦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司法考試 應試者로서 一次예비 시험에 不合格한 者가 判事 檢事を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한바 있다.

21世紀부터 새 歷史가 시작한다고 하여 새 千年이 열리는 해라 하나, 歷史를 創造하는 것은 人間인 것을, 人間이 새롭게 改革되어야 새 歷史가 만들어 질 것, 낡은 사람 잘못된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누가 歷史를 改革할 것인가 反問하지 않을 수 없다.

21世紀는 우리 民族宗教界에서 後天時代가 열리는 때가 왔다고 하여 크게 기대하고 있으나 筆者는 后天世界를 만드는 主役이 人間들이므로 期待할 것이 아니라 人間 各者 修道해야 하겠으니 修道가 誠·敬·信 道德律을 鄭重히 지켜, 한 時도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뿐이라 強調하고 있다.



21世紀 後天은 열렸는데 사람들은 20世紀의 잠에 깊이 빠져있어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다.

月曆 年曆은 새 달 새 해가 되었다고 새 장이 열렸는데 人事는 依舊하니 어떻게 새 歷史가 創造될 것인가?

옛 聖賢이 남긴 古典人間學을 통해서 千年 萬年 변함없이 人間이면 지켜야 할 人間愛 敬人 心志를 배워 끝없이 때문지 않고 새 사람되게 해야 한다.

이래야 歲月이 가서 萬物은 늙어 없어져도, 참 사람은 늙지 않고 萬年青 春으로 永遠할 수 있다.

이러한 참 사람이 歷史創造에 參與해야 새로운 歷史가 創造되는 것이다.

참 사람 되는 道德으로 陶冶하는 것이 옛 사람 따르는 것이 아니라 時間과 空間을 초월하여 不變 黃金처럼 빛나는 貴人이 되는 것이다.

여기 道德教育 道德宗教가 소중하고 萬人이 따르고 익혀야 할 所以가 있다.

### 3. 無敬할 때 誠의 경우

이미 孝經(廣要道)에서 「禮는 敬일 따름이다」(禮者敬而已矣)라고 할만큼 野人次元을 넘어선 文化人 人格者 되자면 言語 行實이 禮儀에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 禮儀는 어떤 文獻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慣行上 妥當性에 부합된 言行이어야 하는바, 核心은 敬이 있어야 한다.

敬이 없이 形式的 禮節을 갖춘다면 非禮라 한다. '誠'이 바로 높은 道德律 이면서 無禮하거나 敬意가 없이 創造的 行爲라 하여 誠을 다하면 無道德行爲가 된다.

禮行인가? 無禮行爲인가 판단하는 것은 外的 形式 禮節에 있지 않고 內心이 敬虔性이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

無敬한 誠이 어디에 있는가 의심스럽겠지만 實例를 든다면 宗教人에게 오히려 많다.

倫理 道德 水準이 낮은 宗教人들은 自己가 믿는 宗教만이 옳고 他宗教는 似而非 또는 迷信으로 취급하며, 同宗教人間은 多情하면서 他人들에게는 異

邦人취급하고 奉仕의 誠도 구별이 따른다. 또 宗派間에 분열되면 誠·敬도 분열되는 것 어떻게 道德的이라 할 수 있는가?

無宗敎人들 中에 道德敎育 받지 않고 家業에 最善을 다 하는 사람이 많아서 富者 되는 것 誠에 틀림없다.

一身 一家族을 위해서 至誠을 다하여 富者가 되는 것 價値平價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도 判定은 ‘敬’有·無가 결정한다고 하겠다.

敬의 道德律은 普遍妥當해야 하므로 편벽해서는 안 된다.

우리 편 우리 派에게 至誠을 다 한다면 派爭을 야기할 가능성을 조성하므로 倫理的 價値를 인정받지 못한다.

一家를 위해서 誠을 다 하는 家長이나 子·女의 경우 어떻게 評價를 해야 하는가?

基本 誠은 인정받아야 한다.

山川 草木과 獸鳥들도 自然의 理法에 따라 태어난 生命, 最善껏 살겠다는 것, 宇宙의 基本誠이라 보아야 한다.

草木과 날짐승 길짐승도 基本誠을 얼마나 바치느냐에 따라 足生하느냐 貧生하느냐 구별되는데, 人生界의 生態인들 千態 萬態한 것은 基本誠에 足 不足의 差가 무한하기 때문이다.

한 家長이 家族을 위해서 至誠하여 富家로 治産한 경우 그것으로 끝난 사람이라면 道德評價는 ‘0’즉 無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倫理 道德이란 人間만이 創造한 위대한 文化인 것이요, 他動·植物에게도 있는 宇宙攝理로서의 宇宙道德은 人間이 關與할 필요도, 할 수도 없는 圈外問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自然의 基本 誠은 ‘0’이듯, 人生이 一身 一家만 通하는 誠은 自然의 草木이나 날짐승 길짐승처럼 家族에게만 最善을 다 하므로 그 家長은 動·植物과 同格이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自然의 誠에 比해서 人間의 道德的 誠은 尊敬心을 저절로 받게 되어야 한다.

卑近한 實例를 들어본다. 市街 市場을 청소하는 미화원들 중에 공동 화장

실 數個所청소하는 사람은 불결한 곳 市民이 깊게 잠자는 새벽 2時에 일어나 깨끗하게 하기 誠意를 다 하는 것, 고마운 마음이 스스로 나온다. 그것이 職業이므로 마땅히 해야 한다 하더라도 市民에게 이른 아침 불결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0下 15度の 嚴冬 아랑곳없이 東奔西走하는 모습 머리가 숙여진다.

그런가 하면 가뭄이 심한 여름철 서로 我田引水할 때 前日 위 논에 겨우 물 대농자, 아래 논 경작하는 근면한 農夫가 새벽 1~2時에 나와 위 논물을 자기 논으로 引水하는 習性の 誠勤, 누구도 부지런하고 誠實하다 존경하는 이 없고 利己的 誠을 憎惡했다. 그 勤農夫 富農은 되었어도 平生 他人들로부터 존경한다는 말 들어 보지 못했다.

이러한 實話 속에 誠·敬의 살아있는 道德哲學이 있다.

誠이 아무리 貴한 道德이라 해도 敬이 없어 尊敬받지 못 한다면 無價値한 無德 나아가 不德反德으로까지 된다는 事實을 알아야 한다.

#### 4. 無敬할 때 信의 경우

‘信’이 敬의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다.

漢字 ‘信’ 한 字만 내세우면 ‘人’字와 ‘言’字로 構成된 만큼 「人生이란 명한 事實을 지켜야 한다.」 「人間된 者 他人에게 약속한 事實 지켜야 義理가 선다」는 倫理 道德的 뜻이 주가 된다.

그러나 韓語로 번역하여 ‘믿음’이라 하면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인지 「他人이 나를 믿는다」는 것인지 애매하다.

漢字의 信은 「내가 명한 事實 지켜 他人이 나를 믿는다」는 雙方이 약속을 지키는 義理의 信이다.

韓語의 ‘믿음’의 動詞 ‘믿는다’는 自動詞인가 他動詞인가에 따라 宗教的 信仰인가 道德的 信義인가 구별되기도 하여 「自信」 「正信」 與否問題가 제기되어 이처럼 韓語 ‘믿음’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

그러나 宗教 信條 三要諦의 ‘信’은 道德이므로 不道德的 信과 對比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信은 義理를 지키는 것, 約束을 지키는 것임에 틀림없으나 모든 約束을

지키는 것이 道德일 수는 없다.

不良한 人生들과 不正行爲를 하기 위해서 조직집단을 만들어 그들의 規則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信을 이행함에 틀림없으나 옳지 않다.

善한 行爲를 하기 위해서 善人들이 조직한 집단에서 規則과 約束을 지킨다면 모든 이들이 尊敬하는 것은 道德的 信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人間集團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背信者로 규탄된다.

宗教人的 信에 관해서는 公共을 위해서 信仰하는 것이 아니라 本人을 위해서 篤實한 信仰生活을 하는 것, 他人들이 尊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道德的 信義와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宗教人的 信仰生活이나 또는 日常生活에서 社會人이 約束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道德人이라 尊敬하지 않고, 公共益에 도움을 주는 信人이라야 존경한다.

敬 받는 信만이 價値있는 德이다.

## 5. 無敬할 때 人間社會의 경우

人間은 왜 萬物의 靈長일 수 있는가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특별히 孟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측은한 마음이 있고, 수치지심도 있으며, 공경심도 있고, 是非를 가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측은한 마음은 仁이요, 수치심은 義이며, 공경심은 禮, 시비를 가림은 智이다.-----」<sup>26)</sup>

人間은 生來的으로 仁·義·禮·智라는 四大 道德性を 갖추고 태어났으므로 貴한 存在라고 하였다.

여기 性善說을 떠나서 后天的 우리 經驗속에서 實感하는 마음 否認할 수 없다.

또한 人間은 社會的 動物이라는 定義 東西古今이 是認하는 사실 모두 萬物의 靈長인 證據이다. 人間이 道德性を 가지고 高度의 社會生活을 하는 것,

26) 「惻隱之心, 人皆有之. 羞惡之心, 人皆有之. 恭敬之心, 人皆有之. 是非之心, 人皆有之. 惻隱之心, 仁也. 羞惡之心, 義也. 恭敬之心, 禮也. 是非之心, 智也.----」(孟子: 告子 上)

現代 生物學的으로 따져도 腦細胞가 精密하게 조직되었으므로 可能한 것이다.

문제는 왜 人間으로 태어나서 當然히 惻隱한 마음, 羞惡하는 마음, 恭敬하는 마음, 是非를 판단하는 마음으로 社會生活을 賢明하게 營爲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가 에 있다.

筆者는 人間問題에 깊은 關心을 갖고 연구 끝에 先天的 道德性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人生 各者 腦機能이 優秀한가 不足한가 에 있고, 不足한 사람이면 後天的 努力을 하는가 않는가, 하면 어느 정도 하는가 自作에 달려 있다고 歸結한다.

主題인 ‘敬’도 항상 조심스럽게 잘 지키는 사람은 高級人間이기 때문이요, 不敬無敬한 人生은 動物級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며, 全般的으로 人生社會가 無敬社會化된다는 사실은 人間の 尊嚴性이 低質化되어 간다는 것을 肅然히 反省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 6. 小結

‘敬’은 주로 道德的 德目으로 崇尚되어 오고 있으며 또한 宗教人에게 있어서도 修道上 명심해야 할 德目이다. 왜냐하면 信仰의 對象 神과 心通하기 위해서는 人對人에 있어서 敬하는 것 以上 高敬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基本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宗教人은 無神宗教 즉 佛教信者라 하더라도 自重하기 篤實하여 誠·眞·敬의 處身을 벗어나지 않기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宗教人들은 得道나 했다고 생각하는지, 믿는 神이 자기 保護神으로 確약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교만한 사람이 많은 바 反敬의 자세이므로 道德的 敬부터 배워야 하겠다.

21世紀가 열리면서 人類歷史는 급속도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지 옛 부터 지켜오던 倫理 道德은 곧 守舊規範이므로 미련 없이 버리는 경향인바, 이것은 新進함이 아니라 失尊時代化 되어 가고 있음이다.

위에서 強調한 바와 같이 人間을 尊重하는 方向으로 人類史가 進行해야 歷史가 발전하는 것이요, 道具가 편리하게 改良되는 것을 歷史發展이라 생

각하면 人間 懶怠史를 찬성하여 安逸無爲 人生을 지향하고 不誠實 不敬虔한 動物的人生 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3·4·5節은 無敬할 때 誠信 德目과 人間社會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보았다.

萬事를 成하는 誠도 利己的 成功은 결코 尊敬하지 않고, 信이 義理를 지키는 德이라 하더라도 不良集團員 間에 信義를 지키는 것은 不敬集團이기 때문에 反道德이라 하였다.

人間社會는 人爲的 場인 바, 좋은 社會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不足한 人生이 많은 것은 사실이어서 不美스런 社會相 허다한 것, 눈으로 보면 是正하는 努力을 게을리 말아야 할 뿐이다. 不足하게 태어난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사실을 自省하여 自力으로 是正하면 敬人으로 自成하는 것을 不爲하는 것이 문제다.

敬人은 높은 人格者인 바 性善說을 떠나서 自省 自力으로 自成하는 사람 누구도 可能함을 自信하기 바란다.

### Ⅲ. 信

#### 1. 道德 倫理的 信

漢字로 '信'이라 쓰면 '人'字와 '信'字로 구성된 文字이므로 「人生으로 태어났다면 말을 해야 하고, 한 말은 지켜야 한다.」 뜻의 글자라 했다. 그러므로 言明한 事實은 꼭 實踐해야 한다는 約束遵守를 前提한 義理 倫理 道德이 主된 뜻이라 하였다.

그러나 韓語로 번역하면 '믿음'이 主語가 되고 '믿음'은 「信賴함」 「信仰함」 「내가 他人을 믿음」 인지, 「他人이 나를 믿는 것」 인지 애매하다.

本節에서는 순서상 漢字 原意라 할 「信義」 즉 倫理 道德的 信을 밝히자니 孔子의 信論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 1) 孔子의 信思想

孔子의 信思想은 信義가 첫째로 꼽혀야 할 것이다.

「사람으로써 信이 없다면 어떤 쓸모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마치 큰 수레에 끌채 끌 멍에 輓가 없고, 작은 수레에 끌채 끌 輓이 없는 것 과 같으니 어찌 끌고 갈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수레는 크고 작고간에 물건이나 사람을 태우고 끌고 가는데 目的이 있는 바, 끌채 끝에 멍에가 없다면 무엇에 의지해서 수레를 끌고 갈 수가 있겠는가」 27)

비유하여 말하였다.

둘째 信의 思想은 人間·社會 健康信號德으로서의 ‘信’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날 孔子가 弟子들과 對談할 때 각자 소망을 말해 보라 하여 듣고 나니,

「子路가 先生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하였다. 孔子말씀에 老人들은 편안하게 하고, 친구들과는 信義를 두텁게 지내며, 少年들에게는 혜택을 주어 따르게 하면 좋겠다. 하였다.」 28)

매우 平凡한 소망 같으면서 人間의 삶의 哲學이 거기에 있다.

人生으로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다 老死한다면 幸福한 一生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孔子 말씀에 윗사람이 禮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尊敬하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義理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信義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誠宜롭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면 四方 백성들이 子女를 데리고 살코자 모일 것이다.」 29)

여기가 信義 健在한 社會이다.

人體가 健康할 때 百病이 침범하지 못하듯, 人間社會에 信義가 健在하면 無病 健康社會임을 말하였다.

셋째 教育 基本指針으로서의 信을 言及한다.

「孔子께서는 主로 네 가지 方針을 教育하였으니, 詩經 書經 六藝등 學問과 行實을 바르게 할 것과 誠實한 實踐人이 될 것과 信義가 투철한 人間이 될 것에 力點을 두었다.」 30)

27) 「子曰人而無信，不知其可也。大車無輓，小車無軌，其可以行之哉。」(論語:爲政)

28) 「子路曰願聞子之志。子曰老者安之，朋友信之，少者懷之。」(公冶長)

29) 「子曰---上好禮則民莫敢不敬，上好義則民莫敢不服，上好信則民莫敢不用情。夫如是則四方之民，襁負其子而之矣。---」(子路)

특히 信이 없는 社會는 마치 自然界에 法則이 없는 것이나 같아서, 오늘 西쪽으로 넘어간 太陽이 來日 東쪽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과 같다.

人間이 尊嚴한 存在라면 일단 社會生活에서 하겠다고 공할 경우, 自然 法則처럼 西入東出하는 太陽이 절대로 軌道를 이탈하지 않아서 偉大하듯, 人間도 約束을 절대로 지켜야 尊嚴하다 아니할 수 없다.

넷째 政治 基本指針으로서의 信을 들지 않을 수 없다.

「子貢이 政事에 관하여 묻자.

공자 말씀하기를 百姓들의 食糧문제를 해결할 것과 國防문제를 해결할 것과 信義社會를 이룩하는 일이라 하였다.

다시 질문하기를 부득이하여 이 셋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하니 兵事문제를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子貢이 부득이하여 버려야 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겠습니까? 하자 食糧문제를 버려야 한다. 自古로 人生이 태어났으면 죽기 마련이다. 그래서 죽기를 피할 수는 없는 것, 信義社會가 무너지면 人間된 者 발 부칠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다.」<sup>31)</sup>

즉 不信社會가 된다 하여도 生命은 유지하여 살아갈 수는 있지만 萬物의 靈長으로서의 人間은 끝나고 下等動物과 똑같이 살아갈 것이니 그런 삶은 미련 없이 버리겠다는 것이다.

孔子의 '民信'思想은 「國民이 政府를 信任한다. 信賴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市中 書店 論語 解說書) 筆者는 爲政者가 政治할 때 目標를 信義社會를 실현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국민이 爲政者를 믿을 수 있도록 政治하라 할 때 초점은 政治人에게 集中된다. 즉 正直한 政治家되는 것으로 任務가 다 되나, 「民信」이 國民 各者가 信義 투철한 人格者 되는 것은 비슷한 해석 같으나 實은 焦點이 180度 반대 방향에 있게 된다.

'民信'을 우리 나라 말로 번역할 때 「백성이 믿는다」가 되고, 漢字 熟語로는 「國民이 信義가 있다」가 되는 바, 너무나 두 번역문장이 거리가 멀

30) 「子以四教, 文行忠信.」(述而)

31) 「子貢問政. 子曰足食, 足兵, 民信之矣. 子貢曰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去兵. 子貢曰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去食. 自古皆死, 民無信不立.」(顏淵)



다. 信의 附加字를 ‘仰’으로 해서 「國民이 信仰 있다」 하면 宗教國家를 뜻하게 된다.

이처럼 發言者의 本意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번역을 해야 할 것이기에 前 各論 論文에서 자세한 해설을 하였기에 綜合論文에서는 생략한다. 다만 ‘民信’은 「爲政者는 國民으로부터 信任받아야 한다. 信賴받아야 한다.」는 옳지 않고, 「國民은 信義가 있다」가 옳다고 판단한다.

위 해석이 옳지 않은 것은 「民信」 두 字 이외에 他字가 즉 「爲政者」나 「王」 없고, ‘民’이라는 主語와 ‘信’이라는 述語 밖에 없는 것을 假主語를 만들어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더우기 君主時代는 가고 民主時代가 와서 나라마다 民主社會를 실현하는 마당에, 王이나 大統領 한 사람이 國民으로부터 信任받는 政治를 해서 좋은 民主國家가 될 수는 없다. 國民 모두가 王이요 國家의 主人이므로 民主政治 目標를 全國民 人格者國家되기에 두어야 한다.

다섯째 忠信思想을 말해야 한다.

여러 말씀이 있으나 一語으로 줄인다.

「子張이 處世行實문제를 묻자, 孔子 말씀에, 말은 忠直하며 眞實하게 하고 行實은 돈독하고 恭敬스럽게 하면 비록 오랑캐 땅에 가서도 살 수가 있거니와, 말이 충실하지 못하여 믿음성 없고 行實이 불손하면 어찌 자기 마을과 近洞에서 사람대접 받고 살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sup>32)</sup>

忠과 信은 野蠻人社會에 가더라도 그들을 感化시킬 만큼 崇高한 德으로 평가되어 仁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교육되었다.

「선비는 金과 玉을 보배로 생각하지 않고 忠과 信을 보배로 생각한다고 하였다.」<sup>33)</sup>

참으로 忠 信이 金 銀 寶 玉에 비교할 수 없는 貴重한 德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다.

32) 「子張問行. 子曰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里行乎哉.」(衛靈公)

33) 「儒有不寶金玉, 而忠信以爲寶」(禮記:儒行)

## 2) 老子的 信思想

老子는 孔子만큼 人間界의 實踐哲學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信'의 言及도 다섯번 나올 뿐이다. 대표적 章만 든다.

「大德의 모습은 오직 道를 따라 나타날 뿐이다. 도가 物되게 하는 것은 오직 恍惚할 따름이고 또 恍惚할 뿐이다.

恍惚할 따름이여! 그 가운데 象(모습)이 있고, 恍惚할 따름이여! 그 가운데 物이 있다.

고요하고 고요할 따름이여! 그 가운데 精氣가 있고, 그 精氣는 지극히 참되고 그 가운데 信이 있다.

옛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은 없어지지 않고 만물의 근원을 살핀다.

나는 어떻게 만물의 근원이 그러한지 알겠는가? 이 때문이다.」<sup>34)</sup>

老子的 道德經 全 81章 中에서 '信'에 관해서 言及한 5個章 가운데 老子的 信哲學이 독특하게 들어 있는 章은 21章으로서 '信'은 한 字만 「其中有信」으로 나올 뿐이다. 그 외에 四個章에 나오는 '信'은 一般 通念으로서의 '信'이었다.

21章은 老子的 宇宙 森羅萬象이 生成하는 蒼生觀을 말한 것이다.

太初 宇宙萬物이 形成할 때 恍惚하고 고요하며 그윽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宇宙의 精氣는 眞氣이기 때문에 最大의 信으로 萬物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老子가 보는 宇宙는 그 元初부터 眞한 精氣로 뭉쳤기 때문에 거짓된 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最高의 信 保證處인 것이다.

宇宙內 全萬物의 始發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므로 自然히 全象界는 眞實한 것, 그렇게 全萬物이 있는 곳이 自然이다.

老子的 哲學은 自然主義라 하는 바, 그가 보는 自然은 추호도 거짓이 없는 眞實界이므로 오히려 人生이 造作하여 옳다고 하는 것이 僞善하고 不信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無爲自然이 眞實하고 거짓이 없어 自然을 全적으로 믿을 수 있다

34) 「孔德之容, 惟道是從. 道之爲物, 惟恍惟惚. 惚兮恍兮, 其中有象. 恍兮惚兮, 其中有物. 窈兮冥兮, 其中有精. 其精甚眞, 其中有信. 自古及今, 其名不去, 以閱衆甫. 吾何以知. 衆甫之然哉, 以此.」(老子:21章)

는 ‘信’觀이다.

人間 對 人間の 信 不信이 문제가 아니라 宇宙內 全萬象의 存在法則이 眞하고 精하여 人間이 造作하다 失手따위 하는 不信은 絶對로 없는 絶對信이 老子的 信觀이다.

여기에 道敎의 元祖는 老子라 한다 해서 ‘信’도 宗敎的 信仰의 信이 개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老子的 哲學을 모르는 妄想이다.

또한 孔子의 倫理 道德의 信 즉 信義의 信은 人界의 信이므로 老子的 宇宙自然의 信과 次元이 달라 解釋을 달리 해야 한다.

그러나 孔子의 信思想과 老子的 信思想이 一致하는 경우가 있었다.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하니 子貢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선생님의 가르침을 傳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자, 孔子 말씀하기를 「하늘이 무엇을 말씀하시더냐? 四時가 運行하며 萬物이 生成하고 있으니, 하늘이 무엇을 말씀하시더냐?」 하시었다.』<sup>35)</sup>

여기가 孔子의 人間界 信이 宇宙의 信 天의 信과 合一한 境地에서 說明한 句節이요 人信이 最高에 이르면 天信과 統一됨을 깨닫게 한다.

老子的 自然主義와 孔子의 人間主義가 統一된다면 참으로 自然스런 大人 人間主義가 創出될 것임을 構想하게 된다.

## 2. 宗敎의 信

‘信’ 한 字를 表記하면 東洋에서는 仁·義·禮·智·信 五常의 한 德目を 연상하게 되겠고 또는 信義 信賴 信任을 주된 글자로 생각하기 쉽다. 특별히 宗敎的 信을 말하고 싶다면 ‘信仰’이라 表記하지 않는다면 뜻이 通하지 않을 만큼 表意文字 信은 倫理 道德 哲學的 概念이라 할만 하다.

本 信章 宗敎節에서 信仰문제를 論하기 위해서는 韓語로 表記하기 위해서 ‘믿음’이라 해야 하겠다.

信仰이나 믿음은 倫理 道德 哲學的 概念이 아니므로 그 意味世界가 客觀

35) 「子曰 予欲無言. 子貢曰子如不言, 則小子何述焉 子曰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陽貨)

的이고 普遍妥當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그것은 信仰의 自由, 宗教의 自由가 있기 때문에 劃一的 宗教體驗이 있을 수 없어 信仰·믿음의 內容이 各自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既成宗教에 있어서도 有神論的 宗教와 無神論的 宗教로 크게 對立된 것을 볼 때 宗教意味世界가 얼마나 복잡한지 짐작할 일이다.

宗教體驗은 物質體驗이 아니라 精神靈的 體驗이므로 獨自的 主體的 體驗은 제 三者가 느끼고 비판할 수도 없어 여러 宗教에 대하여 是是非非가 紛紛한 것도 사실이다. 既成宗教와 新興宗教의 似而非論 進步論爭도 非客觀的 믿음論이므로 公正한 評定은 못 내린다.

이처럼 宗教의 信仰 믿음은 그 自由로 해서 倫理 道德的 信 信義와 類를 달리함을 알 것이다.

宗教人들은 信仰生活에 있어서 믿음의 自由가 筆者의 自由圖에 明示한 바와 같이 高質的 上向自由를 선택할 能力이 있는 사람이 宗教生活할 것이요, 선택의 自由가 低質的 下向自由를 택하면 迷信이나 幻想的 迷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宗教人들은 信仰·믿음의 對象을 賢明하게 判斷하여 信義 못지 않게 眞理로 確信하는 信仰生活하도록 힘쓸 것이며, 一般社會人들이 尊敬할 수 있는 社會生活할 때 信賴받을 수 있는 信義人 信仰人이 될 것이다.

### 3. 小結

本 信章에서는 漢字 構造로 보아서 人間 對 人間이 信義를 지키는 倫理道德의 뜻을 주로 살폈고, 信仰이라 할 때 宗教의 信 믿음이 되므로 이 두 뜻을 兩立할 것이 아니라 相合할 수 있다면 漢字 表意文字로서의 效能을 혜택 받을 수 있음을 알았다.

우선 '信'의 主意는 孔子를 통해서 確認할 수 있었다.

人間과 信의 關係는 비유하여 大車 小車에 있어서 끌채라 보고 信이 없는 者는 끌채 없는 수레라 하였다. 大小車는 모두 人·物을 운반하기 위해서 있는데 끌고 갈 끌채 없는 수레 무엇에 쓰겠는가? 人生으로 태어났다면 人間社會에 各者 任務 몫을 찾아 꼭 내가 할 일 어김없이 實行해야 수레로서

수레 뭍 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끌채 없는 수레는 廢車 처분되어야 하듯 人生으로서 信用 없는 者 廢人이라는 峻嚴한 宣告가 아닐 수 없다.

또한 孔子의 '民信'思想은 열 번 되새겨도 흡족하지 않아 더 할수록 새 뜻을 깨닫게 한다.

爲政者의 三大 任務는 「足食」 「足兵」 「民信」인바, 부득이 三者 中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할 때 「足兵」이라 하였고, 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입니까? 할 때 「足食」이라 답하고 이어 解明하기를

「自古로 人生이 태어났다면 죽기 마련이다. 그래서 죽기를 피할 수는 없는 것, 信義社會가 무너지면 人間된 者 발 붙일 곳이 없기 때문이다.」(---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顏淵)

라 하였다.

無信者로서 足食하여 살아간다면 그 時間부터 動物로 사는 것, 動物로 延命하기보다 一瞬이라도 貴한 人間 辱되게 할 수 없다는 宣言이다.

信義가 生命보다 더 소중하다는 精神이다.

다음 老子의 信思想은 宇宙의 攝理로 파악하였다.

春夏秋冬 四季가 運行하고 太陽이 東出西入 어김이 없는 것, 宇宙의 信이 아닐 수 없다.

宇宙의 原理로 森羅萬象이 生成하는데 人生이 例外일 수 없건만, 無信 不信者는 自然에 存在할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信의 倫理 道德 哲學을 떠나 宗教的 信仰은 人 對 人도 아니요 人 對 宇宙도 아닌 主體的 所望이라 하겠다.

絶對者 神과 靈이 通하여 작은 人生으로서 大靈과 對話하고 平和하겠다는 有神論的 宗教가 있는 반면 宇宙의 뜻이 무엇인가 探索하여 結局 내 마음속에 萬象이 들어있음을 發見하면 物我一如되므로 大覺이라 하는 無神論的 宗教의 信仰을 알아야 하겠다.

이렇게 信에는 倫理 道德 哲學的 信이 있고 큰 소망을 靈으로 달성하려는 信仰이 있다.

## 結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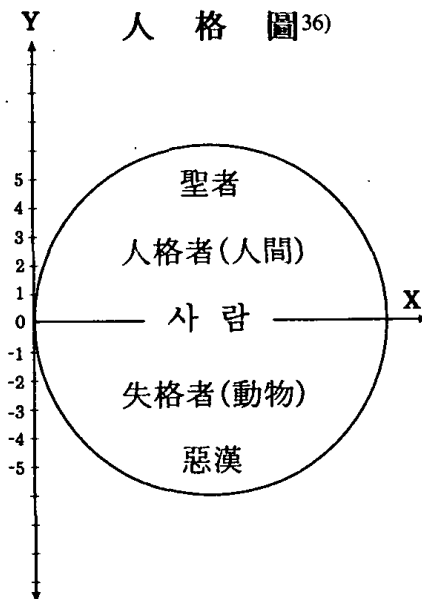
人間으로서 最高 理想的 人間像을 論하기로 하면 十德을 갖춘 것으로 부족하여 몇 十德 百德 以上을 갖춘 이를 말 할 수 있고, 그것을 간추리기 위해서 儒家 最高德인 仁人論, 佛家의 慈悲, 基督教의 博愛人論을 할 수 있으나 本 論文은 誠·敬·信을 갖춘 人間像을 택한 것은 信條 三要諦 綜合論이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此際에 宗教를 떠나 萬人이 꼭 갖춰야 할 人間必須德이기 때문이다.

誠은 至極하면 至天한다고 할 만큼 宇宙의 原理와 通하며, 하고자 하는 일 아니 되는 것이 없다는 成功의 要訣이요 失敗하는 사람은 誠이 不足하기 때문이라는 切實한 人生敎訓이다.

많은 家訓 중에 誠이 으뜸을 차지하는 것도 家庭을 가진 사람 모두 成功 繁榮을 希望함이요 그 뜻을 이루자면 誠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無誠한 사람 無物이라는 敎訓, 恒시 銘心하여 有誠 有物을 確信하고 希望 있는 人生을 살아야 하겠다.

‘敬’의 德을 論할 때 主題를 「人格 無限 內實 擴充化 德 敬의 研究」라 하였다. 그 論文 緒論에서 獨特한 學說로서 人格圖를 발표했다.



36) 拙稿 : 人格 無限 內實 擴充化 德·敬의 研究, 大巡思想論叢 第10輯(2000) 92面 參照

人生이 무엇인가? 한다면 앞 圖式으로 說明된다.

圓의 直徑線은 ‘사람’으로 태어난 상태의 無善 無惡의 生物學的 人種일 따름이다. 좋은 腦機能을 敎育과 自力으로 善用하면 人格이 높아진다. 人格의 向上을 y축의 數值가 나타내고 +圓面積內에 있는 사람들이 人格者들이요 올라 갈수록 높은 人格者이며 最高級 人格者가 聖者 聖人이다.

반대로 좋게 타고난 腦機能을 敎育받고도 逆用하고 人間되려는 努力을 拒否하면 反人格 즉 動物 나아가 動物以下의 惡漢이 된다. 이런 動物 以下의 人生은 ‘失格者’라 命名하였다.

人生이 善人 될 것인가, 惡人 될 것인가 그것은 좋은 腦機能의 善用 惡用의 選擇의 自由에 있다.

筆者의 人生哲學觀으로 보면 人生은 철저한 自由의 存在者요 오직 政府가 人間敎育을 잘 하느냐 않느냐에 큰 責任있다고 判斷한다.

옳은 人間敎育은 誠 敬 信 道德을 中心으로 倫理敎育에 힘 써야한다고 強調한다.

사람이 人格者 될 것인가 失格者 動物이 될 것인가, 自由의 存在者를 聖者까지 높일 수 있는 것 곧 ‘敬’ 이 敎育의 方向을 잡아 주고 밀어 준다.

信의 德을 간결히 論하자면 誠 敬이 成功的 偉大한 人格者되게 한다면 信은 正義社會 理想社會 后天福祉社會를 만드는 大德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宗敎人들이 소망하는 天國 後天仙境은 그 基本인 正義社會부터 자리 잡혀야 하는바, 人間 對 人間의 信義를 完成하여 天地理法에 어긋남이 없어 相通해야 한다.

이것이 信條 三要諦 綜合論의 結論이다.